

2022학년도 대학평의회의 의사록



2023. 01. 26

한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회의 심의[자문] 내역

NO	심의안건	심의결과
1	■ 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 자문완료
2	■ 부속병원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및 2023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 자문완료

첨부 1. 2022학년도 제7 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1부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2022학년도 7차 회의)			의장
일 시	2023. 01. 26 (목) 15:00	장 소	신본관 제2회의실
참 석 (12명)	[교수평의원] 조태제, 이동호, 이상민, 엄찬영, 오제훈 [직원평의원] 신남호, 장기술, 장유정 [학생평의원] 이소리(S), 박세원(E), 안재익(G) [조교평의원] 윤지성		
불 참 (3명)	[교수평의원] 김영제 [외부평의원] 김선일, 장재영		
■ 회의진행 1. 개회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안건1(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1) 의장이 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추가 경정 예산 및 2023년도 본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2) 임규건 기획처장이 한양대학교 본예산 관련하여 2022학년도 추가 경정 예산 및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다. 3) 강범수 예산팀장이 한양대학교 본예산 관련하여 2022학년도 추가 경정 예산 및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다. 4) 강범수 예산팀장이 기금용도 변경 안에 대해 설명하다. 5) 김상오 기획예산팀장이 ERICA 캠퍼스 본예산 관련하여 2022학년도 추가 경정 예산 및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다. 5) 의장이 의원들에게 궁금한 사항 및 지적할 사항에 대하여 묻다. 6) 1의원이 서울 전체 예산 편성에 2022년 예산은 5700억 정도였는데 추경을 하면서 740억 정도가 늘어났고 2023년 본예산이 710억 정도 2022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설명한 것으로 파악해보면 기계과, 음악관 등에서 기부금 예산이 많이 들어왔고 또 2022년도에 직무발명 보상금 또한 150억 정도가 들어가서 740억 정도 늘어났다고 이해했으며 두 번째로 2023년 본예산은 기금이 들어온 것이 사용되어야 하니 또 여기 투자와 기타 자산 수입의 거의 한 500억 정도 기금이 인출되면서 여기에 70억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2024년도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면 또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한시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다. 7) 임규건 기획처장이 맞다고 답하다. 서울 캠프공사 라는 것이 보통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상치로 23년 24년은 기금인출이 300억 이상을 꾸준히 가기에 900억 정도에 기금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기계 약정한 분들에 의해 계속 들어올 것이며. 결론적으로 3~400억은 계속 3~4년 동안 계속 인출이 되어야지 되고 그러기에 이제 잔고가 바닥으로 갈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매년 3,400억 정도는 기금 인출이 될 수 있음을 말하다. 8) 1의원이 21년도 결산을 보면 기금이 1890억 있었는데 22년 추청을 보면 280억 늘어났다 가 2023에는 460억으로 감소되는데 이 금액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 맞는지 묻다. 9) 임규건 기획처장이 맞다고 답하다 10) 1의원이 기금 보유 현황이 서울과 에리카가 구분이 되는지 묻다.			

- 11) 임규건 기획처장이 결산서와 대차서에 구분이 되어있고 통장도 다 나뉘져 있다고 답하다
- 12) 1의원이 에리카 기금이 1898억원 기준으로 얼마 정도 분리가 되어있는지 묻다.
- 13) 김상오 기획예산팀장이 에리카 기금이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예측하기에 대략 한 44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답하다.
- 14) 강범수 예산팀장이 서울은 1300억 정도 되고, 본부는 RC나 연구 기금이나 장학기금은 손을 못을 댈수 없어 본부가 가입할 수 있는 기금은 22년 결산, 927억 정도로 예상하고 927억을 가지고 기계관, 전자관, 제3공학관, 실험동물실까지 계산하고 현재까지 4가지 근무에 대한 충분한 예상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다. 병원이 앞쪽으로 나가면서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빠져 있고 그게 된다면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다.
- 15) 2의원이 직원보수 급여가 마이너스로 감소되는 것은 퇴직에 따른 급여 계산상에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묻다.
- 16) 강범수 예산팀장이 맞다고 대답하다.
- 17) 2의원이 직원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매년 5억 정도에 예산절감이 있음으로 이해하면 될 거 같다 이야기 하다.
- 18) 강범수 예산팀장이 명퇴금이 빠져있다고 이야기 하며 22년 본예산과 22년 추경을 보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예산은 5분 정도를 책정되어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10~15명이 명퇴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다. 2~3년 동안 10분 이상 되면 결국은 20억 가까이 올라간다고 말하다.
- 19) 3의원이 병원퇴직금도 명예퇴직금인지 묻다.
- 20) 강범수 예산팀장이 맞다고 답하다.
- 21) 3의원이 장기적으로 적절히 퇴직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학교에 내각에 효과적인 것이라 이야기 하다.
- 22) 강범수 예산팀장이 현재는 그러하나 퇴직은 개인적인 판단이기에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한양대 명퇴금이 높거나 낮지는 않고 서울 사립대학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 하다.
- 23) 의장이 교원에 숫자가 늘어나도 정년트랙 교원으로 뽑느냐로 차이가 있기에 그것은 조정 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다.
- 24) 4의원 18p 서울캠퍼스 전자저널구입비용 22억인데 에리카는 동일한 항목금액이 28억으로 잡혀있는데 따로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묻다.
- 25) 강범수 예산팀장이 전자교육비로 20억을 쓴 것은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전략적 연구 쪽에 있고 실제적으로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다. 서울에서 통계를 주면 에리카에서 계약할 때 가서 활용하고 에리카도 평가를 받아야 되기에 같은 것을 절대 동시에 구입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나눠서 한다고 이야기 하다.
- 26) 4의원이 주요 건설가계정을 보면 서울 캠퍼스 공사 설계비에 2022년 전에는 16억이고 2023년 전에 32억 2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지 묻다.
- 27) 강범수 예산팀장이 건설을 하면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를 의뢰하게 되는데 설정되어있는 것은 제3음악관, 전자관이이며 기계관 설계는 끝이 났다고 이야기 하다. 또한 공사는 공사하기 2~3년 전에 건축비에 한 5% 정도를 설계비로 꾸준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 앞으로 그만큼 공사가 많아서 30억을 보장하고 평소에는 15억에서 15억을 해줘야한다고 이야기 하다. 설계비는 당장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또 토론하고 논의하고 착공을 한다고 답하다.
- 28) 4의원이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나 올해부터 기계관, 전자관, 동물실험센터, 제3공화관이

어디 부서가 담당해야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기본 계획이 없이 그때 그때마다 건물을 짓다 보니 실용적일지 몰라도 에리카 캠퍼스는 전체적으로 캠퍼스 같지가 않아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지 총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다. 또 한양프라자 같은 경우도 계속 중간 중간 필요할 때마다 리모델링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외관에서 보면 2층 4층은 새 것 같으나 3층은 옛날 건물 같아 돈은 돈 대로 들어갔으나 이것도 어떤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거 같다고 이야기 하다.

- 29) 강범수 예산팀장이 2년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었으나 지금 학교에 돈이 없어서 기부자의 의견에 따라서 지분을 짓다 보니 건축위원회의 의견만을 반영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며 두 번째로 전공관에 대해서도 기획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 앞으로 100% 정도 비율에 따라서 100% 정도 30%에서 40%까지 본부 공간으로 활용되게 이번 기획안도 합의를 봤다고 이야기하다. 기계관도 30% 이상은 기계가 쓰지 못하게 막았고 앞으로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공간도 본부 비율을 정하고 공용 연구라든지 복지 공간이든지 대형 연구센터를 유치하면 이렇게 분할하는 쪽으로 계속 보고 이런 쪽으로 합의를 봤다고 이야기하다.
- 30) 4의원이 한양 플라자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다.
- 31) 강범수 예산팀장이 복지 시설까지 가하면 한 3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며 오래된 건물이지만 100주년 될 때까지는 충분히 활용하며 모두를 위한 공간이기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다.
- 32) 의장이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것만 생각할게 아니라 곧 한양대가 100년을 맞기에 그것을 고려한 캠퍼스 설계가 되도록 건축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기능을 고려하되 캠퍼스 전체와 조화되게 그리고 미관, 환경친화, 인권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 설계했으면 좋겠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임기응변적으로 수시로 그리고 자주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며, 기부에 의한 건축의 경우에도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개별 단과대학이나 학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대학 전체의 발전을 바라는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가 한다고 이야기 하다.
- 33) 5의원이 예산을 증가하고 늘어난 예산을 대응하는 방식이 큰 덩어리가 대학원생과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린 것인데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지 앞으로의 대한 대한은 있는 것인지 묻다. 또한 복지 예산에 대해 예전과 거의 똑같이 하거나 약간 줄였는데 2023년에는 특별하게 추진하는 복지가 없는지 묻다.
- 34) 임규건 기획처장이 등록금 부분은 간단하게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대학 수입의 60%가 등록금에 의지하고 있기에 등록금이 자율화 되고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외국인학생들 등록금을 올리는 것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유학생들의 등록금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받고 있고 중국은 5배를 더 높게 받고 있어 사실 두 배 세 배 올려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나 학교에는 최소인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다.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거는 대학이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산학협력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겠지만 연구나 교육 사업으로 앞으로 수입 규모도 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이야기 하다.
- 35) 강범수 예산팀장이 사립 구조상 에리카는 공간으로 수입구조가 당장에 나타내는 것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이전에 복수학위제를 추진으나 두가지에 갈등이 있어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 하다. 복지 성과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볼수 있으나 아직 차기 총장님과 공식적인 미팅이 없어서 금여 인상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다고 답하다

- 36) 6의원이 에리카의 청장 부지 매각 대금 121억과 그 다음에 카카오 센터 부지 임대 지금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증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는지 묻다.
- 37) 강범수 예산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 보증금으로 8억이었고요 임대료로 10억 그래서 총 18억으로 이제 구분된다고 말하다.
- 38) 6의원이 에리카에서 대학 성장 도지뿐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땅이 같이 개발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건 여기 안 잡혀 있는지 묻다.
- 39) 예산팀장이 해당 부지 포함해서 계약 상장 부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매각이 되는 부분이고 일부 땅에 대해서는 구매한 안산시 쪽하고 이견이 있다고 이야기 하며, 상하이 사업 관련 되어 그거에 대한 적용 되는 것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학교 쪽에서는 대략 한 1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2023년 올 회계연도에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말하다.
- 40) 2의원이 지난번에 우리 학교 예산을 다른 학교, 서울시내 사립대학이랑 비교 좀 해달라고 해서 한 2년 정도까지는 비교한 데이터를 같이 보여주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 그것을 같이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말하다.
- 41) 기획처장이 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으나 판단하고 의사 결정하는 것에만 활용을 하고 있고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은 경영진에서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 새로운 팀장님과 의논을 해서 공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비교하며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다
- 42) 의장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내용을 묻다.
- 43) 예산팀장이 산학협력단에서 기술 이전료 수입이 들어오면 교수님이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산단이 직접 지출해 세율이 낮았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바꾸어 근로소득해 근로소득을 높아지게 한 것이라 우리 쪽에서는 기타 교육 금액으로 잡수입처럼 잡아 거꾸로 교수님들께 아까 말한 것처럼 주는 거라고 이야기 하다.
- 44) 의장이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 업적평가 인센티브를 인상한 점을 평가하며, 많은 교수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만 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효과가 상쇄되고 있어 절세 방안을 재무팀 및 산단과 논의하여 찾아주길 바란다. 또한 신임 총장이 곧 취임하게 되므로 예산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하여 신임 총장의 정책예산 부분 등에 관한 구상을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하다.
- 45) 의장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대학에서 부분은 마치도록 한다고 말하다.

3. 안건2,(부속병원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및 2023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 1) 의장이 부속병원 2022학년도 추가 경정 예산 및 202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 하다.
- 2) 이형중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서울병원 본예산 관련하여 2022학년도 추가 경정 예산 및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다.
- 3) 이규용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서울병원 본예산 관련하여 2022학년도 추가 경정 예산 및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다.
- 4) 1의원이 대학은 추경 예산이 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병원은 2022년도에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이 550억 정도 감소한 것에 원인이 무엇인지 묻다.
- 5) 이규용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구리병원은 예산 대비 약 254억이 줄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97%가 의료 수익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구리병원의 직원이 1300명인데 855명이 코로나 감염이 되어 보통 초반에는 14일 후반에는 일주일 정도 공백이 돼서 이것만 해도 6천일이고.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또 하나는 구리병원에 교

수님들이 이직, 정직, 퇴직하신 분들이 8분이나 계셨기에, 평균적으로 한 분의 매출이 2억 원이 넘는데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감소되었다고 말하다. 서울병원도 비슷한 이유로 코로나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다. 병원 같은 경우 항상 예산을 높게 잡는데 추경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예산 대비 8억 정도 플러스가 됐었고 그리고 재재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마이너스 140억이었다고 말하다.

- 6) 1의원이 서울병원의 의료 외 수입, 추경이 거의 23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외 수입도 82억이 본예산인데 2022년도 추경이 314억이 되었다. 한 20몇십억 정도 되는 기부금 수입이 여기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묻다.
- 7) 이형중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기부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코로나 손실 보상금 이쪽으로 돌리는 거라 이야기 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안 된다는 소리로 있음을 이야기 하다.
- 8) 1의원이 만약에 정부에서 이걸 주지 않으면 신경 예산이 거기서 더 또 감소될 수 있는지 묻다.
- 9) 이형중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하다. 공간 손실 보전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한 병동에 40병상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 병동은 코로나 환자를 받아야 하며 그렇게 되면 병상 간격도 늘려야 되고 40배드를 20배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없기에 나머지 20배드에 대해 나라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구리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67억 재작년에는 50억을 받았으나 이것은 나라에서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해 놨다고 말하다.
- 10) 1의원이 거기 연관에서 서울병원에 의료의 수입 중에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임대료 수입이 40억 추경으로 43억으로 잡혀져 있는데 임대료 수익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면 서울병원의 이승이 임대료 수입이 현재 보류 예산이 42억 4천이고 추경 예산이 43억 5천인데 여기 세부 내역을 보면 장례식장 편의점, 지호영, 외부 식당 베이커리, 커피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편의점이나 지호영 이런 거에 대비해서 장례식장이 규모 대비 지금 수익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다.
- 11) 이형중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듣기로는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하여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장례식장도 비슷한데 거기는 수익을 전부 다 병원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기에 그렇다고 답하다.
- 12) 1의원이 이정도 규모의 수익이 9억 9천만 원만 나온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 방금 말씀하신 걸로 유추하면은 그럼 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묻다. 다른 자료에서 본 바로 장례식장이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라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양대 병원은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왜 일부만 수입을 잡게 되는 건지 묻다.
- 13) 이규용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구리장례식장은 계륵 같은 존재였다고 말하다. 임대료를 안 내고 보증금 까먹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되어 아예 내보내고 그 공간을 용도 변경을 해서 외래 공간 등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 임대료 수익과 직영을 비교하면 직영은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24시간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적어도 20~30명 정도 되어 그거 대비 직영보다는 오히려 임대료를 잘 내주면 그쪽이 조금 더 수익이 높다고 답하다.
- 14) 의장이 장례식장 등 각종 매장의 임대수입을 적정화하고 임대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완전 경쟁입찰의 채택, 심사기준의 수립 및 심사과정의 다양한 그룹에서의 참가 및 참가자의 확대, 교수평의원 교수의 참가 등이 필요하며, 이것은 고가의 의료장

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말한다.

- 15) 2의원이 2020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의 예산이 양 병원 다 10% 정도 증액되고 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지금 수입에 대한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래서 어떤 사유로 10% 정도 증액하게 되었는지 묻다.
- 16) 이형중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아까 지표가 되는 부분에서 말했는데 오히려 수가 인상 부분이 크지는 않다고 이야기하며 한 2.2% 되고 물가 상승률 부분을 3.1% 보고 경제 성장을 2.3% 보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결국 중요한 건 보통 외래 환자보다는 입원 환자 위주에서 수술 많이 하고 중증 환자 많이 입원시키는 게 기존 수익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11월 12월 1월에서 그런 증가 폭이 조금씩 보이고 있었던 것이, 서울병원이 월 매출이 300억 넘은 적은 없었는데 올 12월에 최초로 300억을 돌파를 해 동기 부여를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보상 체계인데 얼마나 계속 이 시스템이 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들에서 지금 성과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코로나 또한 끝나 갈 것 같아 계속 성장 추세가 있을 것으로 보며 신축 병원도 같이 이제 연동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대략 한 10%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예측은 하고 있다고 말한다.
- 17) 2의원이 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편인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서 추경 때 가지고 또 예산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만 보더라도 5%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다.
- 18) 이형중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의료 상황이라는 건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병원 차원에서 원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차례 교수님들한테 많이 전했었는데 각자 여건에서 5%, 10% 정도 조금씩 환자 한두 명 더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성과금도 조금씩 손을 보고 있다고 답하며 결국은 추가 경정 사실 만들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소 월 300 정도 이상씩은 매출을 올려야지 신축 병원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결국 다 갚아나가야 하는 돈이기에 그 정도, 300억도 안 되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솔직히 이거보다 더 높지도 예상은 했는데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말했다고 답하다.
- 19) 의장이 신축 예정인 서울병원 경우 어떤 컨셉을 잡고 있는지 묻다.
- 20) 이형중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외래 쪽으로 신축 병원을 짓는다고 생각을 한 거는 메르스도 코로나도 외래 입원 환자로 이렇게 서로 토의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을 한다는 의미를 크게 두고 있으며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그렇듯 중증 질환 입원환자 위주로 가기 때문에 외래에 신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우리 병원 자체로 이제 크게 메리트가 있는 건 류마티스와 근골격계쪽, 신경계로 묶어서 신경계 질환, 재활, 그리고 혈액 종양 암 쪽으로 조금 발전이 더뎠기에 이번에 혈액 정형외과 교수들 계속 좀 섭외 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사가 크기에 지금 현재 입원 환자 병동 자체도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수술실도 늘리고 중환자실도 늘리며 응급센터가 있으니 수술실도 잘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순 매출 올릴 수 있는 것은 입원환자와 중증 질환 암 환자분 뇌혈관 심혈관 환자분 간에 수술을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컨셉을 잡고 있다고 말한다.
- 21) 3의원이 서울병원 기준의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 2억 이렇게 잡았는데 증가한 이유가 있는지 묻다.
- 22) 이형중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홍보 관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병원에서 매출 올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타 교수를 많이 방송에 노출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획, 인사 청문, 교과 그다음에 홍보팀이기에 그

거 관련해서 초청 간담회라든지 기자만남, 그런 부분이 있기에 책정이 됐는데 2023년도는 특별히 홍보를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답하다. 그 이유는 세브란스도 홍보비가 1년에 거의 50억 100억 육박하는 것에 비해 한양대는 굉장히 약하다고 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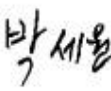

- 23) 의장이 퇴직한 교직원들에게 병원 진료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결정한 데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한다.
- 24) 4의원이 한양대 교직원 분들에 대한 진료비 할인 및 감액이 한 14억 18억 이 정도 보니 1.4% 5%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한양대 교직원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게 됐을 때 할인에 대해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원가 이렇게 변동률이 큰 것인지 아니면 항상 비슷한지 묻는다.
- 25) 이규용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한양대 대학의 서울에 계시는 분들의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구리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 구리병원은 변동이 별로 없고 서울병원은 오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답하다.
- 26) 5의원이 예산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에리카의 캠퍼스 부지가 있고 거기에 지금 재산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지금 병원 입장에서는 거기에 재산 병원을 건립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고대 안산병원도 옆에 있는데 충분히 수익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향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생각하시는 표현이라든가 결과물이 있는지 묻는다.
- 27) 이규용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계획은 아직 총장님과 부총장님이 이야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땅을 대학에서 되고 건물을 시에서 지으면. 그러면 완벽하게 수익이 나는 건데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병원에서 지불하게 되면 그거는 애매해 진다고 답하다.
- 28) 5의원이 한양대 학생들이 한양대병원 의료원을 많이 방문을 하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지 묻는다.
- 29) 이형중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의료보험이 있기에 만약에 병원비가 1만 원 나오게 되면 7천 원은 나라에서 주고 본인 부담금이 3천 원이라 그 3천 원에 대해서 할인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오실수록 좋다고 답하다.
- 30) 의장이 진료 받으시는 한양가족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면 훌륭한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진료해 주시니 마음 편하게 진료 받으러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며, 해당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지 확인하고 종료하다.

4. 폐회

- 1) 의장이 한양대학교 및 부속병원 각각의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자문회의의 종료를 선언하다.

■ 2022학년도 제7차 회의 결과 요약

- 안건 1. 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자문 : 자문완료.
 안건 2. 부속병원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및 2023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 자문완료

대학평의원회 의 장		부의장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김영재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이소리		평의원 박세원	
평의원		평의원	김선일
평의원 장재영			

“끝”